

# 구로오늘신문

극동칼라

02-855-1484

취업사진 여권 증명사진  
가족사진 복원사진

디카 핸드폰사진 즉시가능!

제872호 (주간) <1994년 10월 5일 창간>

2021년 5월 31일(월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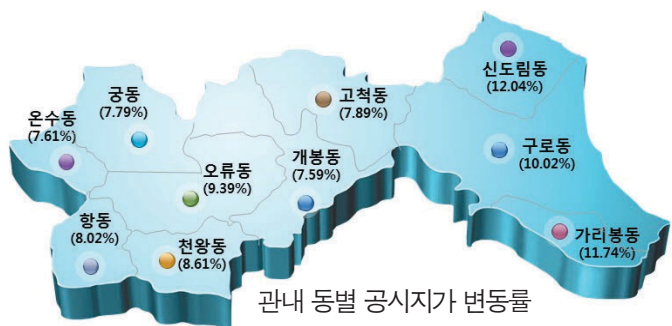
http://gurotoday.com

http://cafe.daum.net/gurotoday

문의 02-830-0905

## 올해 개별 공시지價 발표 상승률 작년比 76% 급증

지난해 5.27%... 올해 9.3% 올라, 서울 평균은 11.54%  
신도림동 12.04%로 최고-개봉동 7.59%로 가장 낮아  
상업 9.79%, 주거 9.4%, 공업 9.23%, 녹지 4.46%



구로구의 올해 개별 공시지가가 지난해에 비해 평균 9.3% 급등했다. 지난해 평균 상승률 5.27%보다 76%p나 올랐다.

구로구가 5월31일자로 관내 3만 5,428필지(개별 3만4,374, 표준지 1,054 필지)에 대한 2021년 1월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했다. <관련기사 3면>

구로구의 지가변동률 9.3%는 서울시의 평균 11.54%보다 낮았다. 또한 인근 금천구 11.58%, 양천구 8.92%, 영등포구 13.9% 관악구 11.33%, 광명시 12.58% 올라 양천구를 제외하면 평균 상승폭이 낮은 수치다. 용도지역별로는 주거 지역 9.4%, 상업지역 9.79%, 공업지역 9.23%, 녹지지역 4.46%, 개발제한구역 7.2%가 올랐다.

동별 지가변동률을 보면 신도림동 12.04%, 구로동 10.02%, 가리봉동 11.74%, 고척동 7.89%, 개봉동 7.59%, 오류동 9.39%, 천왕동 8.61%, 항동 8.02%, 온수동 7.61%,

공동 7.79%가 올랐다. 이 가운데 신도림동, 가리봉동, 구로동이 구로구 평균 9.3%보다 높은 두자릿수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공교롭게도 모두 (을)지역이다.

최근 5년간 연도별 공시지가 변동률을 보면 ▲2017년 3.99% ▲2018년 4.8% ▲2019년 6.71% ▲2020년 5.27% ▲2021년 9.3%다.

구는 토지특성 조사, 지가산정,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이번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원/㎡) 가격인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개발부담금 및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 부과기준이 된다.

구로구는 6월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여부 재조사와 구로구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7월30일 재결정·공시한다. <채홍길 기자>

## 구로구의회 제302회 정례회 25일부터 29일간 개최 6월 7~15일 행정사무감사 실시

6월 22일까지 규정질문, 제2회 추경안 668억, 조례안 등 12개 안건 처리

구로구의회(의장 박동웅)가 5월 25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이성 구청장을 비롯 국장급 이상 공무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6월 22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2021년도 첫 제302회 정례회를 개최했다.

이번 302회 정례회에서는 구청 집행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승인 심사, 총 668억원 규모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한다.

세부 일정으로는 먼저 2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6일부터 6월 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원대표발의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한 후, 6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한다.

6월 7일부터 15일까지는 구의회 사무국을 시작으로 구 분청, 보건소, 동 주민센터와 출연기관인 시설관리공단, 구로문화재단 등을 대상으로 규정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6월 16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 현장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6월 17일, 18일은 각각 제3차, 제4차



구로구의회가 지난 25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이성 구청장을 비롯 국장급 이상 공무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6월 22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2021년도 첫 제302회 정례회를 개최했다.

본회의를 열어 국장들을 상대로 일반분야 규정질문을 실시하며, 21일에는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이성 구청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시책분야 규정질문 및 답변을 듣는다.

이어 정례회 마지막 날인 22일엔 제6차 본회의를 열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안전관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그리고 각 상임위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 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정례회의 주요안건으로는 ▲서울시 구로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만 의원 대표발의) ▲서울시 구로구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

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구로2동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구역변경(안) ▲고척동 한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2건이다.

박동웅 의장은 "이번 제302회 정례회는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매우 중요한 일정으로 계획돼 있다"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됐는지 꼼꼼히 살펴 주길 바라며, 29일간의 회기동안 건실한 견제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진정으로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유권·채홍길 기자>



서울오늘신문

서울오늘신문을 검색하시면 많은 기사를 보실수 있습니다



부수인증매체 한국ABC협회

www.songlimga.com

## 함께 있어 좋은 날엔 더 좋은 곳에

사랑하는 가족과 맛있는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행복한 공간

**정성 그리고 맛**  
음식점의 성패는 고객에 대한 마음가짐, 인생의 레시피는 '사람과 함께 하는 여정'

**정직 그리고 멋**  
진심이라는 빛과 물을 줄 때 마음은 비로소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다

**성실의 향기**  
소나무도 5년이 되어 부리를 내리듯, 기다림을 통한 '행복한 향기'를 나누는 사람

풍미가 담긴 肉의 名家  
**송림가** 예약문의 02.2066.6000

정통의 맛을 담은 宗食 名家  
**실크로드** 예약문의 02.2066.6100

# ‘신도림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갈림길

## 추진위 반대측 갑자기 “추진위원장 해임” 요구 구청에 전격적 ‘사업동의서 철회’로 난관 봉착 토지소유자들 “양측 조속 합의로 사업 추진을”

구로구의 대표적인 재개발 사업장인 신도림도시환경정비사업이 갈림길에 섰다. 사업대상지는 신도림동 293번지 일대 준공업지역으로서 사업 구역 면적은 196,648㎡(약 6만여평)와 건축 연면적은 약 20만 여 평에 이르는 대단지이다.

신도림사업장은 아파트 12평부터 59평까지 총 2,722가구를 비롯해 지식산업센터와 근린생활시설 등이 계획됐으며 한강변(안양천)에서는 드물게 최고 높이 120m에 42층의 최고층이다.

신도림도시환경정비사업은 지난 10여년 동안 3개 단체가 대립해 왔으나 지난해 10월 마지막까지 대립하던 통합주민대표회(위원장 김영우)와 신도림도시환경정비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한복순)가 통합에 합의함으로써 사업시행인가 신청 동의서 징구 작업이 순탄하게 진행되는 듯 했으나 올 2월 26일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자 갈

등이 드러났다.

이유는 통합에 찬성하고 동의서를 제출했던 일부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며칠 앞두고 전격적으로 구로구청에 사업시행인가 동의를 철회했기 때문이다. 동의를 철회한 토지소유자는 23명인 것으로 알려 졌는데 이들은 한복순 위원장의 해임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추진위원회측은 “지금이라도 철회자가 동의에 찬성하면 사업시행인가를 득할 수 있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 길이 없다”고 말한다.

이에 반대측은 “한복순 위원장이 통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능해서 사업시행인가 동의를 맞추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한복순위원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진위원회측은 반대파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사업시행인가를 어렵게 만든 것은 한복순 위원장

의 무능 때문이 아니라 반대파가 통합에 합의해 놓고 갑자기 구로구청에 철회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며, 지속적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내주지 못하도록 공무원들을 압박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더구나 그들은 지난 3월 임시총회에서 위원장 선출 때 위원장으로 입후보해서 얼마든지 주민들로부터 신임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입후보자를 내지 않고 있다가 사업시행인가를 볼모로 한복순 위원장에게 물려나라고 억지 주장을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고자 한다는 의심을 갖고 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속이 타는 것은 토지등소유자들인 것으로 보인다.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기를 원하는 많은 토지등소유자들은 이들의 갈등 때문에 사업시행인가가 늦어지거나 건축심의를 다시 받아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을 갖고 있다.

즉, 신속한 사업추진을 원하는 쪽에서는 추진위원회가 이미 75%의 동의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반대측서 기습적으로 동의서를 철회한 것 때문에 사업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불만을 하고있다. 사



구로구의 대표적인 재개발 사업장인 ‘신도림도시환경정비사업’이 조합원들의 갈등으로 갈림길에 섰다. 사업대상지는 신도림동 293번지 일대 준공업지역으로서 사업 구역 면적은 196,648㎡(약 6만여평)와 건축 연면적은 20만 여평에 이르는 대단지이다. <사진은 사업구역 위치도와 완공후의 조감도>

실 신도림 지역에서 영향력을 갖고있는 최모 이사장과 신도림 J교회와 S교회 조차 추진위원회에 사업시행인가 동의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왜 철회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제는 합심해서 사업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한다.

그러나 반대측은 여전히 한복순 위원장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것

로 보인다. 불신의 근거는 무능이라거나 신도림지역을 잘 모른다는 것 등이다. 사실 재개발 사업장에서 주민간의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좌초한 곳이 적지 않다. 문제는 그 피해는 고스란히 토지등소유자 몫이라는 것이다.

신도림도시환경정비사업의 미래가 갈림길에 서 있어 양측의 극적 합의를 기대해 본다. <김유권 기자>

#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대비 실무교육 가져

구로구의회(의장 박동웅)는 지난 25일 의회 행정기획위원회실에서 제302회 제1차 정례회 대비 의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구로구의회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의원들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선진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의 역량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특히 이번 교육은, 제30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결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의원들의 직무역량을 강화하여 보다 내실 있는 의정활동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 역할에 충실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강의는 지방의정연구소 최민수 소장이 강의를 맡아 결산심사 전략 및 행정사무감사 기법, 실전 사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구로구의회는 지난 25일 오전 의회 행정기획위원회실에서 제302회 정례회 대비 의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사항의 이해와 준비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교육에 참석한 의원들은 평소 의정활동 시 궁금했던 사항이나 애로점에 대해 강사와 의견을 나누며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제 지식 및 다양한 사례분석을 통한 행

정사무감사 조사기법 등을 습득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동웅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행정사무감사를 철저히 대비해 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에 더욱 충실하여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히며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연구하고 학습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구민을 위한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채홍길 기자>

# 구의회 행정감사 자료 모두 435건 요청

## 지난해 요청 건수보다 178건 줄어

### 의원 1인당 평균 31건

구로구의회가 현재 제302회 정례회가 진행중인 가운데 오는 6월 7일부터 15일까지 9일간 ‘지방의회의 꽃’인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다.

이번 행정감사에 의원들이 구청 등에 감사 자료를 요청한 건수는 27일 현재 박동웅 의장을 포함, 의원 14명이 낸 총 435건이다. 이는 2020년 6월에 실시된 행정감사 당시 613건 보다 178건이 줄었다. 갑지역 A의원이 7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원 1인당 감사자료 요구 건수는 평균 31건이다.

이번 행정감사 장소는 운영위원회는 구의회 6층, 행정기획위원회는 구청 3층 창의홀에서, 복지건설위원회는 구청 5층 대강당에서 실시된다.

감사대상은 본청(구의회 사무국 포함) 보건소, 동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구로희망복지재단, 구로문화재단, 구로문화원, 구로구청장 학회 등이다.

일정을 보면 첫날인 7일 오전 10시부터 구의회 사무국을 필두로 11일까지 행감이 계속되며 14일에 상임위원회별로 공개 질문과 답변이 진행되고, 15일엔 행감 강평과 총평이 진행된다. <채홍길 기자>

# 여름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142명 선발

구로구가 여름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구로구에 거주하는 대학생(휴학생 포함) 142명이다.

올해는 근무 기간을 2개월로 연장해 1차 근무는 7월 5일부터 30일까지, 2차 근무는 8월 2일부터

27일까지로, 주 5일 하루 4시간씩 근무한다. 임금은 1일 4만 2,840원, 만근 시 98만5,320원(보험료 공제액 포함)이다.

참여를 원하는 이는 6월 4일까지 구청 홈페이지 새소식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만수 기자>

주간 구로오늘신문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55길 51  
한성상가 B동 325호  
전화: 02)830-0905  
메일: news121@empas.com

홈페이지: http://gurotoday.com 다음카페: 구로오늘신문

회장: 유희상 발행인: 김유권  
주간: 한만수 편집국장: 채홍길  
등록번호: 서울 다-5105  
구독/광고문의: 010-9096-1144

구독료: 월 5,000원: 연 50,000원  
기사제보: 02)830-0905  
계좌번호: 우리은행 예금주 김유권  
1002-347-553475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 합니다

# 구로에서 제일 비싼땅은 어디? 3만5,428필지 개별 공시地價 공시

지난해비 평균 9.3% 올라... 주거 9.4%-상업 9.79%-공업 9.23% 상승

## 뉴스 분석

구로 관내에서 제일 비싼 땅이 어느 곳 인지 아세요?  
구로구가 5월31일자로 관내 3만5,428필지에 대한 2021년 1월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했다. <관련기사 1면>

15만 1,800원)이다. 기자가 27일 직접 찾아간 제일 비싼 땅으로 알려진 2호선 디지털단지역앞 시흥대로변 구로동 1125-1번지 4층 건물 부호빌딩 부지로 공시지가가 m<sup>2</sup>당 1,685만원(평당 5,560만원)이다. 1층에 핸드폰 판매점과 음식점이 입주해 있고 2~4층엔 한의원, 법무

4천원(평당 1천364만2천원)이며, 제일 싼 지역은 향동 산34-2로 m<sup>2</sup>당 4만6천원(평당 15만1,800원)이다. 자연녹지 구역중 제일 비싼 곳은 고척동 57-134번지로 m<sup>2</sup>당 53만6천원(평당 176만8천원)이며, 제일 싼 지역은 고척동 산6-3으로 m<sup>2</sup>당 10만7천원(평당 35만3천

**제일 비싼 땅, 구로동 1125-1 상업지역 m<sup>2</sup>당 1,685만원**  
**가장 비싼 주거지역, 구로동 33 택지 m<sup>2</sup>당 603만5천원**  
**제일 싼 땅, 향동 산 34-2 개발제한구역 m<sup>2</sup>당 4만6천원**

구로구의 지가변동률은 지난해 대비 평균 9.3% 올랐다. 상승률은 지난해 평균 5.27% 비해 76%나 올랐다. 서울시의 25개구 평균 11.54%보다는 낮았고, 인근 금천구 11.58%, 영등포구 13.94, 관악구 11.33%로 양천구 8.92%를 제외하면 평균 상승률이 낮다. 용도지역별로 보면 주거지역 9.4%, 상업지역 9.79%, 공업지역 9.23%와 개발제한구역 7.2%, 녹지지역도 4.46%나 올랐다. 구로구 관내에서 가장 비싼 땅은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앞 시흥대로변 구로동 1125-1번지(부호빌딩) 상업지역으로 공시지가로 m<sup>2</sup>당 1,685만원(평당 5,560만원)이며, 가장 싼 땅은 향동 산 34-2번지(개발제한구역)로 공시지가로 m<sup>2</sup>당 4만6천원(평당

사, 변호사 사무실, 치과의원 등이 자리잡고 있다. 또한 주거지역으로 가장 비싼 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구로동 33번지 구로5동 거리공원 인근 구로우성연립주택으로 공시지가가 m<sup>2</sup>당 603만5천원(평당 1,999만5천원)이고, 제일 싼 주거지역은 궁동 산 1-107로 m<sup>2</sup>당 69만1천원(평당 228만원)이다. 공업지역으로 제일 비싼 곳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구로동 235-2 디지털단지내 에이스하이엔드타워1차 빌딩 부지로 공시지가 m<sup>2</sup>당 614만4천원(평당 2,027만5천원)이며, 제일 싼 공업지역은 구로동 642-31로 m<sup>2</sup>당 181만5천원(평당 598만9천원)이다. 개발제한 구역중 제일 비싼 땅은 천왕동 10-33으로 m<sup>2</sup>당 413만

원)으로 조사됐다. 동별 지가변동률을 보면 신도림동 12.04%, 구로동 10.02%, 가리봉동 11.74%, 고척동 7.89%, 개봉동 7.59%, 오류동 9.39%, 천왕동 8.61%, 향동 8.02%, 온수동 7.61%, 궁동 7.79%가 올랐다. 신도림동과 가리봉동이 평균보다 오른 11~12%대로 상승한 것은 신도림동의 경우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 신축으로 기존 노후 주택 및 상업시설들이 전환되는 등 건축개발로 지가 변동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또 가리봉동은 구로고가차도 철거 및 가리봉 중심도로 공사 등으로 인한 지역활성화 등으로 지가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인다. 반면 개봉동과 고척동의 평균 7%대로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낮



구로구가 5월 31일자로 관내 3만5,428필지에 대한 2021년 1월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했다. 구로 관내 지가변동률은 지난해 대비 평균 9.3% 올랐다. <사진은 관내에서 가장 비싼 땅인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앞 시흥대로변 구로동 1125-1번지 부호빌딩(위)과 공업지역으로 가장 비싼 구로동 235-2 디지털단지내 에이스하이엔드타워1차 빌딩(아래 왼쪽), 그리고 주거지역으로 가장 비싼 구로동 33번지 구로5동 거리공원 인근 구로우성연립주택(아래 오른쪽)>

은 것은 기존 재개발이 완료 됐거나 진행 중 이어서 이미 지가 변동률에 반영 되어 상승률이 낮았고 궁동, 온수동, 천왕동, 향동은 개발제한구역 및 비오톱 등에 저축된 토지가 많아 가격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한편 지가 열람을 원하는 이는 구청 홈페이지(<http://www.guro.go.kr>) 또는 일사편리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seoul.go.kr/land-info>)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6월

30일까지 의견제출서를 작성한 후 구청 부동산정보과나 동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실무팀의 임만규 구청 부동산정보과 지가조사팀장은 "올해 우리구 공시지가 변동률은 평균 9.3%로 서울 25개 자치구 평균 11.54% 비해 변동 폭이 낮다"고 말하고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주민들의 의문 사항을 해소해드리기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 서비스를 운영한다"며 "바쁘시더라도 열람, 의견제출 기간 내에 개별 공시지가를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

공통사업 13억2천만원, 洞 지역사업 4억8천여만원 등 총 18억 규모

### 6월10일까지 접수

구로구가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사업 대상을 공모한다. 구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반영하기 위해 오는 6월10일까지 주민제안사업을 접수받는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내년도 구로구 주민참여예산 운영규모는 총 18억원 내외로 구 공통사업 13억 2천여만원과 동 지역사업 4억8천여만원으로 세분해 운용될 예정이다. 공모 대상은 교통·안전·복

지·환경 등 구정 주요사업분야 전체에 해당되며 기대효과가 주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사업이어야 한다. 단순 시설·물품 등의 교체나 개인·단체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참여를 원하는 이는 주민제안사업 신청서를 작성해 구청 홈페이지([www.guro.go.kr](http://www.guro.go.kr))나 이메일([ananke1006@guro.go.kr](mailto:ananke1006@guro.go.kr))로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우편이나 직접 방문해 접수해도 된다. 구로구 주민 또는 관내 소재 직장인, 단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구는 접수된 제안서를 대상으

로 관련 부서의 타당성 검토와 주민참여예산 총회 투표 등을 거쳐 10월쯤 최종 사업을 결정한다. 한편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 구 공통사업 19개 사업 14억2천여만원과 동 지역사업 26개 사업 3억5천300여만원의 집행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김현석 기획예산과장은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라며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공모를 바란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 소상공인 200억 규모 무이자 융자 지원

1000여명 대상 ... 대출한도 업체당 최대 2000만원

구로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1000여명을 대상으로 총 200억원 규모의 무이자 융자 지원에 나선다. 지원대상은 구로구에 사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융자한도는 최대 2000만원으로 보증료 0.5%, 대출기간 5년,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대상자는 개인 신용평점이 595점(옛 7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구로구는 자금 소진 시까지 1년간 대출 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이후부터 2~3%대 금리가 적용된다. 구는 이를 위해 신한·우리·하

나·서울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저리 융자 지원 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구 8.5억원, 신한은행 3억원 등 16억원을 보증 재원으로 출연, 한도는 200억원(출연금 12.5배)으로 설정했다. 신한·우리·하나은행의 지정된 지역 지점에서 특별 보증을 신청하면 은행이 대상자의 보증한도 등을 고려해 대출을 승인한다. 신청을 원하는 이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금융거래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협약은행 대출취급지점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 새소식을 참조하면 된다. <김유권 기자>

# 쓰레기 무단투기지역 '화사한 꽃밭' 변신

## 구로4동 주민자치회, 한중다문화깔끔이봉사회 등 앞장

쓰레기가 가득했던 구로구 무단투기 지역이 화사한 꽃밭으로 변신했다.

구로구는 “쓰레기 무단투기로 몸살을 앓던 구로4동 지역에 화단이 조성돼 쾌적한 거리 환경이 갖춰지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 개선을 위해 주민자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한중다문화깔끔이봉사회 등 주민들이 나섰다. 직접 황금측백나무, 아스틸베, 매직카펫 등을 심고 가꿨다.

이번에 화단이 조성된 장소는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옆 골목, 구로4동경로당, 우진빌라 옆, 구로두산아파트 담장 앞 등 4곳이다.

화단 조성 후 무단투기가 줄어들었고 주민 화합도 이루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게 됐다.



쓰레기가 가득했던 구로구 무단투기 지역이 화사한 꽃밭으로 변신했다. 구로4동 주민자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한중다문화깔끔이봉사회 등 주민들이 나서 황금측백나무, 아스틸베, 매직카펫 등을 심고 가꿨다.

민숙경 구로4동장은 “화단 조성을 통해 거리 환경이 깨끗해지고 동네 주민들 얼굴에도 웃음꽃이 폈다”며 “무단투기가 근

절될 수 있도록 주민과 함께 화단 주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김유권 기자〉



구로구가 지난달 4월 개장한 공동 양봉체험장에서 체험과 교육에 참여할 주민을 선착순 모집한다.

## ‘달콤한 구로’ 공동 양봉 체험·교육 참가자 모집

구로구가 지난달 개장한 공동 양봉체험장(공동 62번지)에서 체험과 교육에 참여할 주민을 선착순 모집한다.

양봉 1~5회차 체험은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진행 중이다. 7~12회차 신청은 8월 9일부터 12일까지로 체험은 8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 매주 토요일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은 꿀벌의 일생, 생태 등 이론과 벌꿀 시식, 채밀체험 등 실습 등으로 이뤄진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1회당 4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신청을 원하는 구로구민은 구

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다.

구로구민을 대상으로 양봉교육생 10명도 모집한다. 6월 14일부터 18일까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수강료는 6만 원이다.

교육은 6월 23일부터 8월 30일 매주 수요일 실시하며 양봉전문강사가 기초양봉, 계절별 벌 관리법 등에 대해 알려준다.

단, 양봉체험과 교육 일정은 코로나19, 기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문의) 구청 지역경제과 860-3031, 2366, 2851, 2047.

〈한만수 기자〉

## 구로새마을협의회 '하절기 방역봉사활동' 실시

### 노후 16개동 차량용 방역장비도 모두 교체 완료

새마을지도자 구로구협의회(회장 겸 구로구새마을회 회장 직무대행 정태충)는 지난 4월 16일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차량용 방

역 장비 차량용 쌍발기 15대를 일체 교체하고, 구로구 16개동 휴대용 방역장비 모두 점검 및 수리를 완료했다.

노후된 방역장비 차량용방역쌍발기를 2020년도에 항동협의회 차량용 쌍발기 교체에 이어 올해에는 나머지 15개동협의회 차량용 방역쌍발기를 모두 교체했다.

새마을지도자 구로구협의회는 위 방역장비를 바탕으로 구민건강증진을 위한 방역봉사활동에 협의회 16개동 회장들과 새마을지도자들이 함께 지난 5월 1일부터 시작해 오는 10월 31일까지 매주 2~3회 오후 5시~8시에 방역봉사 활동에 나서고 있다.

또한 하절기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모기 해충 퇴치 방역 및 코로나19 방역, 하수방역, 취약지역 방역, 일반 골목길, 이면도로 방역 등 구로구새마을지도자들이 앞장서 방역봉사를 벌인다.

〈채홍길 기자〉



새마을지도자 구로구협의회는 구민건강증진을 위한 방역봉사활동에 협의회 16개동 회장들과 새마을지도자들이 함께 지난 5월 1일부터 시작해 10월까지 매주 2~3회 방역봉사 활동에 나서고 있다.

구로오늘신문 구독 및 광고문의 010-9096-1144

### 정백리 차지철

누가 차지철에게 돌을 던지랴!

김유권 지음  
문학/사육판 양장/ 325쪽/값12,000원/ 발행일 2013년 3월 5일

구로희망복지재단  
Guro hope welfare foundation

사랑의열매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 당신이 희망입니다

거창하거나 부담스럽지 않게,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구로희망복지재단과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더 쉽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작은 씨앗이 꽃을 피우고 열매 맺듯이,  
당신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 희망의 꽃을 피울 것입니다.

구로희망복지재단과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경제적 어려운 이웃을 지원합니다.

지원문의 : 구로희망복지재단 02)867-1695  
후원계좌 : 우리은행 015-176590-13-520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제3회 '구로구 상호문화축제' 성료

## 20일 유튜브로 송출... 상호문화 미니토크쇼, 축하공연 등 '풍성'

### 구로구시설공단 4층 꿈나무극장서

구로구가 세계인의 날(5월 20일)기념 제3회 구로구 상호문화축제를 지난 20일 구로구시설관리공단 4층 꿈나무극장에서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축제는 주민·기관 참여 공모 영상과 상호문화 사업 소개, 축하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로 꾸며졌다.

구로구는 팬데믹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인들을 위한 코로나19 극복과 희망의 메시지 전달, '함께 만드는 상호문화도시 구로'를 주제로 1부와 2부로 나뉘어 오후 3시부터 2시간 40분 동안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아나운서 김현유와 다문화가족 헤디의 사회로 레인보우(다문화가정 어린이) 합창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이인영-윤건영 국회의원과 구로구의회 박동웅 의장의 축하메시지, 그리고 자매도시 프랑스, 캐나다 시장, 유럽평의회 상호문화도시 대표 등의 축하 영상메시지 상영, 이성구청장의 개회사가 이어졌다.



구로구가 세계인의 날 기념 제3회 구로구 상호문화축제를 지난 20일 구로구시설관리공단 4층 꿈나무극장에서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사진은 이성구청장이 모범 내외국인 주민 등 표창 및 감사패 수여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어 모범 내외국인 주민에 표창 및 감사패 수여, 착한가게와 착한의원에게 감사장 및 현관 증정, 표창 및 감사패 수상자 인터뷰, 그리고 서울공연예고 1,2학년 댄스팀의 축하공연이 흥겹게 펼쳐졌다.

행사 2부는 이성구청장과 사회자, 초·중·대학생·주민등 7명이 참여한 '상호문화 미니 토크쇼'를 시작으로 주민참여 영상 '내가 생각하는 상호문화'와 '코로나19를 이기는 슬기로운 생활'에 이어 '영상으로 만나는 상호문화도시 구로'가 진행됐다.

이어 다문화 초중생 연합팀과 디오네 여성 4인조 팝페라 밴드의 축하공연이 펼쳐졌고, 폐막 홍보영상으로 '내외국인 주민이 함께 행복한 상호문화도시 구로'를 끝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구로구는 지난해 8월 서울시 최초로 '상호문화도시'로 지정된 데 이어 같은 해 10월에는 유럽평의회 상호문화 지표평가에서 1위를 달성했다. 올해는 지난 4월 29일자로 다문화정책과를 상호문화정책과로 변경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채홍길 기자>

### 유희상의 열린 칼럼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를 지배한 전통적인 규범으로서의 효 또는 효도는 부모가 살아 있을 때 정성껏 모시는 것뿐만 아니라 사망한 뒤에도 극진히 제사를 모시는 것 등을 포함한다. 이이(李珥)는 '성학집요(聖學輯要)'에서 사친(事親)의 도를 언급하면서 "대체로 효도는 부모를 섬기는 일에서 시작하고, 임금을 섬기는 일이 중간

우리 나라의 속담에 '아버지만한 자식 없다'는 말은 바로 이런 것을 말해 주는 것 같다. 즉, 자식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 아버지만은 못하다고들 한다. 효도를 중요시한 조선시대의 문화적인

### 효자(孝子)에 대하여 ㉔

이 되며, 입신하는 것을 맨 마지막에 둔다"는 공자(孔子)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이렇듯 자식의 일체의 행동은 효도와 관련하여 평가되었고, 자식은 그의 일생을 통하여 이 효도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부모의 뜻이 만일 의리에 해로운 것이 아니면 마땅히 말씀하기 전에 받아들여서 조금도 어기지 말 것이요, 만일 이치에 부당한 것이면 화한 기색과 좋은 낫빛과 부드러운 말소리로 반복하여 아뢰어 꼭 들으시도록 할 것이니라"

전통은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효자를 낳았고, 그들의 지극한 효심은 학자들의 문집에 담겨서 효자비(孝子碑)의 비문에 실려서 가문의 자랑거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덕행(德行)의 표준이 되어왔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요즘 세대에 효가 사라지고 있는 원인 중 개인주의가 팽창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도 있지만, 무조건적인 자식사랑에 목을 매고 있는 부모의 탓도 무시하지 못한다. <본지 회장>

## '해피스쿨'로 청소년 마음 건강 지킨다

### 초중고 6개→11개로 참여 학교 확대... 학교가 선택한 프로그램 진행 학생·교사·학부모 대상... 예방 증진, 고위험군 관리, 위기개입 등 운영

구로구가 '해피스쿨' 사업을 펼친다.

해피스쿨 사업은 청소년들의 마음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한 정신건강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사업 대상 학교를 확대해 관내 초·중·고등학교 6개교에서 11개교로 학교 수를 늘렸다. 참여 학교는 구로·덕의·서울하늘숲·운수초등학교, 구로·개웅·신도림·향동중학교, 신도림·우신·유한공업고등학교다.

사업은 예방 및 증진, 고위험군 관리, 위기개입 등 3단계로 나눠 단계별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실시한다. 올해는 지난해와 다르게 학교가 단계별 프로그램을 선택해 참여할 수 있다.

예방 및 증진 단계는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개선과 편견 해소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학생, 교



구로구가 '해피스쿨' 사업을 펼친다. 해피스쿨 사업은 청소년들의 마음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한 정신건강 프로그램이다.

사, 학부모 등 교육 대상에 따라 마음건강 행사, Happy Mind-Class, Sam Talk 프로그램을 한다.

고위험군 관리 단계에서는 Happy Mind Care, 찾아가는 학교 상담사, 고위험군 연계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찾아가는 학교 상담사는 학교별 상담 학생을 2명에서 올해 5명으로 확대했다.

마지막 위기개입 단계는 문제가 발생한 학교를 대상으로 운영돼 자살 예방을 위한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전문교육 등이 이뤄진다.

최윤정 의약과장은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전문기관과 협력해 통합 지원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유권 기자>

## '스마트구로 홍보관'이 내 손 안에

### AR 체험서비스 개발, 시설 첨단기술 통해 가상공간 옮겨와

"스마트구로 홍보관이 내 손 안에 펼쳐진다."

구로구가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스마트구로 홍보관 증강현실(AR) 체험서비스'를 제공한다.

'스마트구로 홍보관'은 주민들이 미래 도시 모습을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구로구가 2019년 9월 신도림역 지하 광장에 조성한 공간이다. 사물인터넷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홍보관 이용이 어려워짐에 따라 구로구는 방문 없이도 홍보관 콘텐츠를 경험해볼 수 있도록 '스마트구로 홍보관 AR 체험서비스'를 개발했다.

'스마트구로 홍보관 AR 체험서비스'는 첨단기술을 통해 디지털 트윈, 시민상황실, 스마트실증 서비스, 스마트시티 구로 등 실제 홍보관 시설들을 가상공간에 옮겨놨다.

이용자는 색칠놀이를 하며 '가상 홍보관'을 체험해보고 각 공간에 대한 퀴즈도 풀어볼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이는 구



구로구가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스마트구로 홍보관 증강현실(AR) 체험서비스'를 제공한다.

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서커스 AR' 앱을 설치하고 구청 홈페이지, 구 블로그 등에서 '스마트구로 AR 색칠놀이'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된다.

'서커스 AR' 앱으로 '스마트구로 AR 색칠놀이'를 스캔하면 스마트폰 화면에 '가상 홍보관'이 나타난다.

김수한 스마트도시과장은 "코로나19로 주민들의 '스마트구로 홍보관' 방문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번 체험서비스를 마련했다"며 "주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스마트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2021.5.11.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일반도로의 3배로 상향됩니다.**  
 ● 과태료 금액 : 승용차 8만원 → 12만원 / 승합차 9만원 → 13만원  
 서울구로구청장 서울구로경찰서장

# 온라인으로 즐기는 Book적 Book적 책 축제

### 29일 오후 2시 유튜브 'GUROBOOK' 가족독서 골든벨·퀴즈 등 진행

구로구가 온라인으로 '구로 책 축제'를 개최한다.

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주민들에게 책을 통한 치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구로 책 축제'를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9회째를 맞이한 '구로 책 축제'는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2013년에 시작했다. 책을 통해 꿈과 희망을 펼쳐 나가길 바라는 의미에서 '책 읽는 구로! 꿈꾸는 구민!'을 슬로건으로 정했다.

축제는 29일 오후 2시 유튜브 채널 'GUROBOOK'을 통해 이상구청장의 축하인사와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실시간 생중계된다.

이어 독서퀴즈 대회 '가족 독서 골든벨'이 진행된다. 초등학생과 학부모가 팀을 이뤄 서바이벌 형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간다. 2021년 '구로의 책' 중 유아·아동·청소년 분야 3권과 구립도서관 관련 문제를 출제한다. 총 50팀이 온라인 플랫폼 ZOOM(Zoom)을 통해 참여하며, 우수한 성적을 거둔 6팀에는



구로구는 제9회 '구로책 축제'를 29일 오후 2시 유튜브 채널 'GUROBOOK'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 된다. (사진은 사전 녹화된 2021 구로 책 축제 특별상 시상식)

메달과 도서상품권이 지급된다.

참가자 외에도 누구나 유튜브를 통해 시청할 수 있으며, 소정의 상품이 증정되는 퀴즈 이벤트도 마련된다.

한편 본 축제에 앞서 다양한 독서 대회가 진행됐다.

가족 2인 이상이 같은 책을 읽고 독후감을 작성하는 '가족 독후감 쓰기 대회'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열려 7팀을 선발해 21일 지혜의 등대 홈페이지에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0일까지는 일상 속 책 읽는 모습이나 도서관 응원 문구를 담은 사진을 대상으로 '도서관 챌린지 독서사진공모전'을 실시해 지혜의 등대 홈페이지 투표로 12점을 선정했다. 축제는 폐막식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이재순 문화관광과장은 "이번 책 축제를 통해 주민들이 책과 더욱 가까워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책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 경비원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 6월 4일까지 구청 일자리플러스센터 방문 신청... 40명 선착순

구로구가 관내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경비원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경비직은 경비업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일반경비원 신입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취업이 가능하다. 이에 구는 중장년층의 취업을 돕기 위해 교육부터 취업까지 한스톱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교육은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민간경비 교육기관인 (사)한국경비협회 서울지방협회(가마산로 313, 2층)에서 진행된다.

교육내용은 경비업법, 범죄예방

론 등 이론교육과 장비사용법, 신변보호실무, 체포호신술 등 실무교육으로 구성된다. 단,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교육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참여자에는 교육비, 수수료 후 취업연계 등의 지원을 받는다.

신청을 원하는 만 40세 이상 70세 미만의 주민은 6월 4일까지 구로구청 1층 일자리플러스센터를 방문해 구직등록 후 신청하면 된다. 40명 선착순 마감이다.

문의) 구청 일자리플러스센터 860-2500, 2158, 2159.

<김유권 기자>

# 노후 비상벨 60대 성능 개선

### 고성능 장비로 교체... 긴급 상황시 벨 누르면 관제센터 연결

### 어린이보호구역, 여성안심귀갓길, 공원 등 총 903대 운영



구로구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비상벨을 IP네트워크 인터넷전화 방식의 고성능 장비로 교체했다.

구로구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비상벨의 성능을 개선했다.

구는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공원, 주택가 등의 장소에 방범용 CCTV와 비상벨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며 "노후 비상벨의 성능 개선을 위해 IP네트워크(인터넷전화) 방식의 고성능 장비로 교체했다"고 밝혔다.

기준에 설치된 비상벨은 아날로그 방식으로 잡음이 많이 들리고 음질이 떨어져 성능 개선이 필요했다.

이에 구로구는 지난해 108대에 이어 올해 오류로8바길, 구로중앙로 등 주택가를 중심으로 비상벨 60대를 교체했다. 구가 운영하는 비상벨은 총 903대가 됐다. 남은 노후 비상벨 22대도 올해 중 교체할 계획이다.

비상벨은 긴급 상황 시 현장과 관제센터를 실시간으로 연결해준다.

비상벨을 누르면 즉시 구로구 관제센터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화면에 현장 영상이 나타나고, 관제센터에서는 현장 영상을 보며 경찰 출동 요청 등의 조치를 신속히 취할 수 있다.

김수한 스마트도시과장은 "비상벨 성능 개선이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과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로구는 어린이보호구역, 여성안심귀갓길, 주택가, 하천변 등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장소에 총 4075대의 CCTV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40만 화소 이하 노후·저화질 방범용CCTV를 200만 화소급 고휘화질 장비로 교체 완료했고, 올해는 홍수 예방·시설물 관리용 CCTV도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채홍길 기자>

# 관내 '위기아동 보호가정' 모집

### 양육자 25세 이상, 아동과 나이 차이 60세 미만, 전문자격 조건

### 교육수료 후 0~2세 아동 3~6개월간 보호... 양육수당 등 지원

구로구가 학대로 인해 원가정에서 분리된 0~2세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위기아동 보호가정' 모집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구로구는 "최근 아동학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학대피해아동을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즉각분리제도를 시행했다"며 "이에 구로구도 신규 보호가정 발굴을 위해 홍보에 나섰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양육자의 나이가 25세 이상으로 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이어야 한다. 가정내 18세 미만인 자가 3명 이하야 하는 등 가정 환경 조건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청소년상담사, 의료인 등 사업 관련 전문자격 요건도 갖춰야 한다.



필요 자격을 갖춘 경우 보호가정의 역할, 아동양육 코칭 등 부모모양성교육 20시간을 받은 뒤 서울가정지원센터의 자격 심의를 거쳐 보호가정으로 선정된다.

선정된 보호가정에게는 매월 전문아동보호비 100만원, 초기 아동용품구입비(최초 1회 100만원),

심리검사·치료비, 가정양육수당 등이 지원된다. 단, 보호 기간에 따라 지원 금액의 차이가 있다.

자격 요건, 지원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www.ncr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기아동이 발생하면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는 학대피해아동을 보호가정에 연계한다.

즉각분리된 0~2세 학대피해아동은 보호가정에서 3~6개월간 지낸 뒤 원가정으로 돌아가거나 전문가정위탁 또는 입양 등 장기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전환된다. 신청을 원하는 가정은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또는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 전화(02-325-9080)로 할 수 있다.

이경애 어르신청소년과장은 "상처받은 아이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며 "구로구도 구 홈페이지에 웹포스터, 카드뉴스, 리플릿 등을 게시해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 02-325-9080. <한만수 기자>

**정백리 차지철**  
누가 차지철에게 돈을 던지랴!

김유권 지음  
문역/사륙판 양장/325쪽/값12,000원/발행일 2013년 3월 5일

# ‘백신 접종 어르신’ 대상 경로당 운영 재개

6월 1일부터 197곳 자율적 개방 ... 1차 접종후 2주 이상 경과해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운영, 수용인원 제한-식사·음식물 반입 금지

“코로나19 백신도 맞고, 경로당도 이용하세요!”

구로구가 코로나19로 중단한 경로당 운영을 6월 1일부터 재개한다.

구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어르신들의 고립감, 우울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단계적 백신 접종이 진행됨에 따라 접종을 완료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설 운영을 할 계획이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관내 경로당 197개소 중 운영 재개를 원하는 경로당에 한해 자율적으로 개방하며 이용대상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후 2주 이상 경과한 어르신이다.

구로구는 운영에 앞서 별도의 방역지침을 마련했다. 운영시간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만 운영하고 입실 인원을 제한해 거리두기를 유지한다.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 방역물품을 비치하고 바둑, 장기 등 접촉성 프로그램, 식사, 음식물 반입 등은 금지한다.

경로당마다 감염관리책임자도 지정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구로구가 코로나19로 중단한 경로당 운영을 오는 6월 1일부터 재개한다. 관내 경로당 197개소 중 운영 재개를 원하는 경로당에 한해 자율적으로 개방하며 이용대상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후 2주 이상 경과한 어르신이다. (사진은 경로당 재개방전 관계자가 방역활동을 하고 있다)

확인서와 2주 이상 경과 여부를 확인하고 마스크 착용 여부, 방문자 목록 작성, 열 체크,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 등 방역 수칙도 철저히 준수한다. 응급상황에 대비해 구청, 동주민센터, 구로구보건소 등 비상 연락체계도 구축했다.

한편 구로구는 6월 3일까지 60~74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 접수를 받는다. 사전 접종예약을 원하는 대상자는 02-853-3072~3076으로 전화하면 된다. 이 밖에 온라인(<https://ncvr.kdca.go.kr>), 질병관리청 1339,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동주민센터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경애 어르신청소년과장은 “질병관리청의 60세 이상 백신효과 분석결과에 따르면 1차 접종 2주 후부터 89.5% 이상의 감염 예방효과가 확인됐다”며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건강도 지키고 경로당 등 공공시설도 안전하게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구청 어르신청소년과 860-2656. <채홍길 기자>

# 관내 코로나19 확진자 누적 1,472명

27일 현재 일주일새 30여명 늘어, 사망자 11명 그대로  
서울 확진자 4만3,219명-사망자 482명

구로 관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계속되어 누적 1,472명이 됐다.

27일 현재 확진자는 ‘구로구지인 모임’ 6명(전체 13명), 디지털 단지 콜센터 관련 3명(전체 12명) 등 지난 19일 하루에만 13명 등 일주일 전 비해 30여명이 늘었고, 사망자는 지난주와 같이 11명이며 1,378명이 완치 퇴원, 83명이 치료 중이다. 자가격리자는 국내접종자 679명, 해외입국자 502명 등 모두 1,181명이다.

한편 구로구민의 감염경로별 확진자를 보면 미소들요양병원 관련 47명, 오류동 해적집 관련 42명, 구로콜센터 관련 20명, 개봉3동 욕(유전)사우나 16명, 구로동 A아파트 관련 14명, 중국동포쉼터 관련 11명, 만민교회 10명,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9명, 신도림동 핀포인트타워(콜센터) 관련 5명, 관악구 리치웨이 관련 5명, 타시

군구 접촉자 895명, 해외 입국 13명, 기타(조사중) 382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서울시 전체 확진자는 27일 현재 모두 4만3,219명으로 사망자는 482명이다.

구청별로 보면 ▲송파구가 제일 많은 2,521명 ▲강남구 2,397명 ▲강서구 2,159명 ▲관악구 2,012명 ▲노원구 1,986명 ▲중랑구 1,937명 ▲은평구 1,910명 ▲서초구 1,826명 ▲동작구 1,809명 ▲성북구 1,801명 ▲강동구 1,711명 ▲동대문구 1,612명 ▲영등포구 1,602명 ▲양천구 1,520명 ▲구로구 1,472명 ▲광진구 1,415명 ▲도봉구 1,373명 ▲마포구 1,356명 ▲강북구 1,226명 ▲성동구 1,177명 ▲용산구 1,129명 ▲서대문구 1,067명으로 22개구가 1천명을 넘었다. 이어 ▲종로구 752명 ▲금천구 695명 ▲중구 660명을 기록하고 있다. <채홍길 기자>

# 코로나 백신 접종 총력 지원 “안심하고 맞으세요”

60~74세 어르신 6월 3일까지 사전예약... 방문간호사 등 활용 지원

구로구가 코로나19 백신의 안전한 접종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구는 “오는 6월 3일까지 진행되는 60~74세 어르신,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1~2학년)교사 등 접종 대상자의 원활한 예약 접수와 접종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로구는 먼저 관내 16개 동주민센터 방문간호사 인력을 활용해 접종 대상자에게 1:1 안내를 실시한다. 동주민센터의 찾동 관리대장사 9000여명에 대해 방문간호사가 직접 연락해 접종 예약을 돕고, 접종 방법, 이상반응 대처요령 등에 대해 설명해 준다.

구로구는 주민들의 빠르고 편리한 접종 사전예약을 돕기 위해 콜센터 인력과 동주민센터 상담 전담직원 인력도 확충했다.

사전 접종예약을 원하는 대상자는 853-3072~3076으로 전화하면 된다. 이밖에 중앙 예약 콜센터 1339, 129, 건보공단, 심평원이나 온라인(<https://ncvr.kdca.go.kr>)을



구로구가 거동이 불편한 7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해 운영 중인 수송버스 지원도 강화한다. 구로구자원봉사협력단 300여명을 투입해 탑승지부터 예방접종센터까지 안전하고 편안한 이동을 돕고 있다

통해서도 접종예약이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7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해 운영 중인 수송버스 지원도 강화한다. 구로구자원봉사협력단 300여명을 투입해 탑승지부터 예방접종센터까지 안전하고 편안한 이동을 돕는다.

5월 27일에는 오류문화센터(경인로20가길 38)에 예방접종센터 2호점도 개소했다. 지난 4월에 개소한 1호점(구로구민회관)에 이어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접종 인원을 분산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마련됐다.

구 관계자는 “안전한 접종을 통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백신접종 이상반응 가짜 뉴스, 소문에 불안해하지 마시고 해당시기에 예방접종을 받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예방접종 후 부작용이 신고되면 의학·과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철저히 그 내용을 검증하고 있다”며 “60세 이상 코로나19 환자의 치명률이 5.2%지만 1회 접종만으로도 86%의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을 뿐 아니라 중증 진행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유권 기자>

# 오류문화센터에 ‘백신접종센터’ 2호점 개소

개봉동, 오류동, 수궁동, 향동 주민 대상... 나머지 남은 기존 1호점서  
6월중 75세 이상 접종 마무리... 1호점 접종자 대상 셔틀버스도 운행

구로구가 27일 오류문화센터(경인로20가길 38)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2호점을 개소했다.

구는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대한 주민 접근성을 높이고 접종에 속도를 내기 위해 1호선 오류동역 인근 오류문화센터에



구로구가 27일 백신접종에 대한 주민 접근성을 높이고 접종에 속도를 내기 위해 1호선 오류동역 인근 오류문화센터에 예방접종센터 2호점을 개소했다.

오류동역 인근 오류문화센터에 예방접종센터 2호점을 마련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15일 구는 구로구민회관(가마산로25길 21)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1호점을 열고 접종을 진행하고 있다.

2호점 접종 대상자는 개봉1·2동, 오류1·2동, 수궁동, 향동 등 6개 동 주민이며 신도림동, 구로1~5동, 가리봉동, 고척1·2동, 개봉3동 등 10개 동 주민은 기존처럼 1호점에서 접종한다.

접종은 예약자 센터 방문·접수, 예진표 작성, 의사 예진, 접종, 이상반응 관찰순으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 예방접종센터를 통해 75세

이상 대상자 접종이 진행 중이며, 27일부터는 가까운 위탁기관에서 60~74세,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1·2학년 교사 등의 접종이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ncvr.kdca.go.kr) 또는 구로구 접종예약콜센터(853-3072~6)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정삼일 지역보건과장은 “6월 중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며 “주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예약부터 사후 관리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문의) 오류문화센터예방접종센터 853-7825~6. <채홍길 기자>

# 텐트서 즐기는 야외콘서트 '수요음악밤夜' 진행

## 26일 오후 7시 오류문화센터 3층 놀이터서 국악 공연

### 6월 재즈, 7월 클래식 공연

2021년 '수요음악방'이 지난 26일 오후 7시 오류문화센터(3층 놀이터)에서 <수요음악밤夜>로 새롭게 진행했다.

이번 <수요음악밤夜>는 오류아트홀이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로 지정되어 공연장 이용이 불가함에 따라 야외의 텐트 안에서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텐트 안 객석은 철저한 거리두기 뿐 아니라 가족끼리, 친구끼리, 연인끼리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에서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6일 <국악의 기쁨> 공연은 오프와 동시에 신청 마감률 기록하며, 지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았다. <국악의 기쁨>은 크로스오버 팀 '온도'가 한국 전통악기인 대금과 병창 전공인 보



2021년 '수요음악방'이 지난 26일 오후 7시 오류문화센터 3층 놀이터에서 <수요음악밤夜>로 진행했다. (사진은 이날 출연한 '국악의 기쁨' 팀)

컬, 전자피아노의 아름다운 조화로 '수요음악방' 무대에서 독특하면서 짙은 울림의 무대를 선사했다.

<수요음악밤夜>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사전신청을 통해 텐트를 배정 받고, 선착순 80명으

로 인원을 제한하며, 텐트 간 간격을 유지했다. 또한 공연장 방역 및 소독, QR 체크인, 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했다.

공연은 무료로 오는 6월 16일 재즈, 7월 14일에는 클래식 챔버오케스트라가 공연 될 예정이다.

자세한 공연정보와 신청은 구로문화재단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 02-2614-7970.

<채홍길 기자>

### 초대시

## 울음이 끊는다

- 반려견을 보내며 -

시인 조운주



너를 보내는 일은 살아있는 화산(火山)을 가슴에 잠재우는 일이다 추억이 살아서 움직이고 너를 만졌던 촉감의 기억마다 울음이 끊는다

너는 분화해 다른 별로 가고 나는 용암을 천만번 거르고 걸러 낸 정수(淨水) 억겁(億劫)의 시간이 살고 있는 눈물을 바친다 채운이 식어간 너를 끌어안고 심장을 쓰다듬는다

숨이 살지 않는 심장은 끊는 물로도 타는 불로도 데워지지 않는다고 창 너머 까마귀가 조롱하듯 운다

너를 잊으려 애쓰면 애 쓸수록 천지(天地)를 흔들며 지축(地軸)이 바뀌는지 쉽 없이 울음이 끊는다

머지않아 이런 지각변동이 별거 아니라는 듯 빈자리마다 들꽃 무더기가 다녀가고 새들의 울음소리가 흩어질 것이다

- 한국문협 · 한국예총 예술세계(1988년 3월 등단)
- 현대시학 (전)회원, 한강문학 이사
- 중앙대 문인회 회원 · 서울오늘신문 객원기자
- 시집 '나에게 시가 되어 오는 사람이 있다' 외 5권, 공저 수십여 권

# 구로미술협회 '제25회 구로잉벌로미술전' 개최

## 구민회관 '구루지' 서 회원 64명 작품 31일~6월 8일까지 전시

구로미술협회(회장 오현철)가 주관하는 '제25회 구로잉벌로미술전'이 31일부터 6월8일까지 구로구민회관 구루지 갤러리에서 열린다.

'잉벌노'는 고구려 장수왕 때 구로구를 포괄한 지명인 '잉벌노현'에서 따온 것으로 넓은 들판으로 뻗어 나가자는 뜻을 의미한다.

구로미술협회 소속 작가 64명이 참가한 미술전에는 '봄의향연' (오현철 작가) '제부도 환타지' (신삼일 작가) '돌아보다-감천마을' (류지선 작가) '추억' (정근영 작가) 등 60여 점의 작품들이 전



시된다. 누구나 관람 가능하며 관람료는 무료다. 관람을 원하는 이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방문하면 된다.

오현철 구로미술협회 회장은 "이번 전시회가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구로미술협회 지난 1997년 1회 잉벌노전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24회 전시회를 진행했다.

구로미술협회를 이끌어 가는 집행부는 다음과 같다.

△회장 오현철 △부회장 류길숙, 구본숙 △감사 이근순, 이정아 △사무국장 김재석 △재무 임종희. <김유권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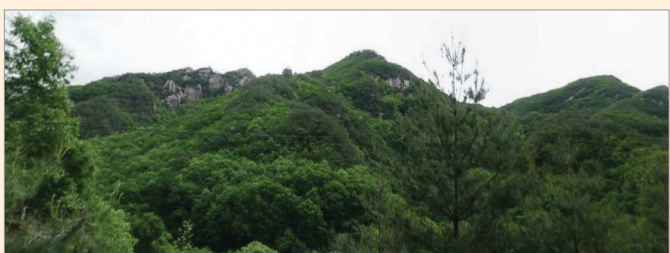
## 60세이상 취업 원하시면 전화하세요 (경비/청소등 전문 무료 알선 기관)

100세 시대... 아직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고... 과연 나에게 맞는 일자리가 있을까? (사)대한노인회 구로구지회 취업센터는 60세 이상 구직을 원하시는 분에게 무료로 취업상담 및 구직 알선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지금 전화 또는 방문해 주세요. ○준비서류 : 이력서 ○접수방법 : 방문접수(월~금 09:00~17:00) (사)대한노인회 구로구지회 취업센터

구로구지회 (신도림역 2번출구, 02)852-4598 서울시 구로구 새말로 18길39, 1층

## 이제 산·임야가 대세이다

# 임야 1평 3,000원... 서울 땅 1평이면 1만평을 산다!



\*산나물·산약초를 키워 보시지 않겠습니까?

\*장뇌삼 씨를 뿌려 보시지 않겠습니까?

남의 산(임야)에서 산나물·산약초를 소유주의 동의 없이 무단 채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73조에 의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소나무 한그루에 500만원부터 3억원까지 거래가 되는 시대입니다.
- 쓸모없는 나무는 베고, 쓸모있는 나무를 가꿔 치유의 숲, 자연휴양림, 가족 캠핑장을 조성 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 전 세계는 온난화 주범인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기업에서 강제로 '탄소배출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 산림청은 매년 전국 사유지 임야를 2천여만평씩 국유림을 조성하기 위해 개인 임야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문의 및 상담 010-9096-1144